

‘천사들의 나눔방’에 우드버닝 기부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훈련생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 문화 확산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근 직업훈련생들이 ‘천사들의 나눔방’에 손수 만든 우드버닝 작품(도마4개, 찻잔받침

대10개, 책갈피26개)을 기부했다. 강진읍 아트홀 1층에 위치한 천사들의 나눔방은 가정이나 가게에서 농산물, 과일, 생활용품, 의류 등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다. 지역주민 누구나 후원이 가능하며 필요한 이웃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매일 채워지고 있다. 기부 받은 우드버닝 작품은 직업훈련생들이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나는야 체험버닝 지도사’ 프로그램에서 만든 작품이다. ‘나는야 체험버닝 지도사’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존감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직업훈련을 맡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지은 팀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훈련생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움을 실천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기회의 폭을 넓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종열 강진읍장은 “완성도 있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기부해 주신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직업훈련생들에게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태 주셔서 천사들의 나눔방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함께하는 나눔 문화가 확산되어 함께 사는 강진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광주복지재단, 무등노숙인쉼터에 후원물품 전달... “나눔 형태 확산”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신일섭)은 지난 21일 광주 북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기독교회 무등노숙인쉼터(원장 이금희)에서 ‘입·퇴소 노숙인 지원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무등노숙인쉼터 이금희 원장, 광주복지재단 신일섭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입·퇴소 노숙인 생활 및 자립지원을 위한 사랑의 후원물품 50종 416점을 전달했다. 재단은 10월부터 약 한달동안 ‘후원물품 모으기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위탁 운영 중인 4개 기관(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광역시장애인보호작업장)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금희 무등노숙인쉼터 원장은 “많은 분들이 정성껏 모아주시는 후원물품을 쉼터 가족들과 귀하고 의미있게 사용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일섭 대표이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의 기회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면 좋겠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벌금내는 이유도 모른채 구치소 수감된 발달장애인

장애인부모연대 구호활동 벌여... “선진국처럼 관련법 개정 절실”

“만약 벌금형을 받기 전에 부모님이나 진술 조력인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22일 장애인부모연대 충주지회 민자영 회장은 이렇게 말하며 장애인에 대한 경찰 수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회장에 따르면 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재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주구치소에 수감된 발달장애인 이모씨(31)를 하루라도 빨리 보내 오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새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해 새아버지에게 폭행을 가해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벌금을 못 내 구류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번에도 진술 조력인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게 장애인부모연대의 주장이다. 이씨는 발달장애인 3급이다.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후 벌금형까지 받았다. 자신이 벌금을 내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민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의 도움 없이 홀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 180만원이 없어 구치소에 구류된 이씨는 매일 고혈압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구류된 며칠 동안 약도 못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고혈압약 지원은 구치소를 방해해 이씨의 존재를 확인한 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야 이뤄졌다. 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장직업훈련에 성실히 임하던 이씨가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않자 수소문 끝에 구치소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장애인부모연대는 당장 이씨를 데려오려 했으나 보유하고 있는 긴급 구호비는 고작 60만원이었다. 민자영 회장은 “이씨에게 건강한 부모만 있어도 구치소에 구류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는 급수를 떠나 그 자체를 중증으로 봐야 하는데도, 수사 과정과 절차 속에 진술 조력인이 동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달장애 대물림으로 가난의 반복 등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공통의 문제”라며 “발달장애인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복지 선진국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해야 한다. 충주에서는 최근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전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아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어났다.



광양 우뢰징검다리봉사단, 이웃사랑실천

광양 우뢰징검다리봉사단(회장 양성모)에서는 최근 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이사장 서경석)에 성금200만원, 유자차 25병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 200만원은 우뢰징검다리봉사단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유자차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광

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양시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지정기탁되며, 유자차 25병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성모 회장은 “이심전심으로 이웃들과 함께 지역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